

매월 5주는
친교의 날입니다.

- 경배와찬양 | 다같이
- 기 도 | 진영림 집사
- 성경봉독 | 시23:1~6(구818p)
- 설 교 | 김지원 목사
『 여호와와 나의 목자2 』
- 중보기도회 | 다같이
- 축 도 | 김지원 목사

- 읍기 -
김지원 목사

< 아들람 하우스를 위한 기도 >

- 하나님의 일꾼들이 언제나든 섬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섬의 장소가 되도록
- 아들람 하우스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 5/31(주일)	친교의날(2)
• 6/7(주일)	6월 당회 50대 헌신예배
• 6/14(주일)	성가대 세미나
• 6/21(주일)	교구예배
• 6/23(화)	전도대 방학

- **국내교회** : 해운중앙교회, 물댄동산교회, 능력과평강교회
- **선교단체협력** : CP, WEC, TMC, 붐뽀미니스트리
- **해외선교**
이준기, 이은실(파송-캄보디아)
양 파블루스 선교사(후원-T국)
이상주 선교사(후원-필리핀)
아들람 하우스(선교사 섬터)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당신에게...

내 사랑아
분을 내는 감정에
자신을 내어주는 일은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다.

수많은 상황이
네 마음을 요동시키기 위해
세차게 문을 두드릴 테지만

아무 준비 없이
벌컥 문을 열어
그 문제들을 맞이하면 안돼.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쉽게 침략당하니깐 말아야.

분노는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든다.
사랑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들지.

많은 사람이
분노의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넘어진다.

내 사랑아,
분노의 감정이
네 마음을 세차게 두드릴 때면
분을 내기에 앞서 내게 나오렴.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렴.
네 마음을 다독 채우고 있는 분노를
나는 다스릴 수 있다.

나는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비바람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그러니 감당하기 벅찬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려 고군분투하지 말고
내게 말기렴.

분노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내게 묻는
일상을 살아가야 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만
나를 찾는 게 아니라,
기쁠 때나 평안할 때도
나와 동행하는 거지.

불이 막 불기 시작했을 때는
소화기로 쉽게 진화할 수 있지만
큰 불을 잡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작은 분노의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전에
내게 나오렴.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의 감정을
내게 말기는 일은
알 수 없는 불안한 모험이 아니란다.

내게 말기는 그 순간,
네 일상의 모든 순간은
완전하고도 즐거운 여정이 될 거야.

너는 내게 말기렴.
네 모든 감정을 나와 함께 나눌 때
분노의 상황에서도
억울하고 괴로울 때도
기뻐할 수 있단다.

내 사랑아,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내게 말기렴!

십 일 조 공은진 권태환 김신희 나영희 박성애 엄정임 오예찬 이남준 이승현 이연전

감사헌금 권태환 김미숙 김성분 김옥임 김은호 김인수 김재영 김찬희 김태순 김태한 김필남 나영희 박영순 박 준 엄정임 오예찬 윤병희 윤옥자 이남준 이보영 이봉엽 이연전 이영란 이영선 이재흥 이정희 이종선 이한주 전월숙 정숙자 정창식 조정자 진영림 최진숙 최현우 한상무 황성국 황신숙 황일석 황점옥

선교헌금 공은진 김순자 김인모 김지원 박성애 손정일 이남준 이보영 이연전 정숙자 표영숙 황성국 황수향

전도헌금 공은진 김순자 김인모 김지원 박성애 손정일 이보영 정숙자 표영숙 황성국 황수향

장학헌금 공은진 김인모 김재영 김지원 박성애 이보영 정숙자 황성국 황수향

구제헌금 공은진 김인모 김지원 박성애 이보영 이연전 정숙자 황성국 황수향

건축헌금 공은진 김인모 김지원 박성애 엄정임 이보영 이연전 정숙자 표영숙 황성국 황수향

주일헌금 장년부

헌금하시는 목적에 맞는 계좌에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헌금(십일조, 감사헌금) - 부산은행 113-2012-0651-02 연산교회
- 특별헌금(전도, 선교, 구제, 장학) - 부산은행 113-2012-0654-01 연산교회
- 건축헌금 - 부산은행 113-2012-0657-00 연산교회